

“전기제품의 안전성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진흥원의 역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장 김봉근
02-579-3291 dhtrans1@hanmail.net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초창기에 전기사업법을 모태로 한 “전기용품 제조면허 등에 관한 건”의 일부 조항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 하나로서는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급증하는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전기적인 상식이 턱없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가 불법 혹은 불량 전기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누전 또는 감전사고나 화재를 방지하고 불요 전자파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이나 인체에 미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4일자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즐기치게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또 신제품의 개발·생산과 출시와 더불어 안전인증대상품목이 계속해

서 증가되었고 변화무쌍한 국제환경과 자유무역시장의 진전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1989년에 1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후 2000년도 와서는 2차로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하여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 시험·안전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순수 민간 안전인증체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매일매일 급격히 변화해 가는 세계의 기술발전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국가간의 무역다찰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추세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각 국가별 통상에 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술기준(ISO/IEC)을 각 나라마다 필히 채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 국가별로 제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공인된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여건이 되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땀흘리며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왔다. 우리 경제는 아직도 불균형과 불황이라고 하는 깊은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곳곳에서 시장개방화의 확대로 국내외 구분 없이 세차게 밀려오는 도전, 전자과장해 규제, 안전기준의 강화, 지적재산권의 확대, 불안정한 환율의 변동 등 가지가지의 우려되는 측면을 우리는 과감하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내부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능률과 낭비적 요소를 찾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품질, 원가, 기술, 마케팅,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어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진흥원은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당면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응능력을 최대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진흥원의 직능을 시대의 흐름에 걸 맞는 조직과 기능으로 새롭게 편성하고 확대 개편한 것이다.

우리 진흥원은 그동안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과 전기용품형식승인과 관련한 각종 행정사항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안전인증기관이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종전에 수행하던 형식승인 관련 업무 대부분이 따라서 이관되고 또한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에 호응하여 회원사가 보다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체제로 개편하였다. 종전의 가전제품 위주에서 전자, 정보, 통신제품, 주방기기 및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문제에 대한 폭을 넓히고자 함이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무역개방화로 확대일로에 있는 덤핑방지 및 산업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전자파기술(EMC) 연구 및 지도, 국내외 안전인증 지도 및 협력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전문 사업기관으로 발전하고 효과있게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

로써 우리의 공동체적 결속을 더욱 강력하게 다지면서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전기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와 일반소비자의 요청으로 상시 운영하게 된 '전기제품PL상담센터'의 활성화이다.

전기제품PL상담센터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기술표준원이 연계하여 결합있는 전기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상담에서 분쟁조정 및 보상에 이르기까지 친절, 신속, 공정이라는 모토아래 전문성을 가지고 합의·조정·해결해 나가는 곳이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법률적 쟁송으로 가기 이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대립적 관계를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대립짓는 전문상담 중재(ADR)기관으로서 문제해결에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기제품PL상담센터'는 피해소비자와 제조자 등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가 되고 있다. 또한 아무리 사전에 PL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대비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느닷없는 사고발생시 이와 관련한 위험부담을 적절히 분산시

키기 위하여 진흥원에서는 제조물책임 배상제도를 현대해상화재보험사와 연계하여 단체공제보험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인기리에 시행중에 있다. 회원사로부터의 호응으로 걸찬티에 진행하고 있어 금년에도 계속 시행하여 회원사의 위험과 비용부담을 감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전기제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명의 이기이며 우리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는 필수제품이다. 그래서 우리 회원사에서 개발하고 제조하는 신제품 및 우수한 전기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따라서 소비자가 현명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매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또한 외국제품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15일 예정으로 "2004년도 우수 전기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우선 100여개 국내 모범 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발본색원 작전이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난 2001년도 4월부터 전기제품이나 부품이 사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취득하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과 기준 이

하의 조악한 불량제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산과 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 수입 및 판매·유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문적인 요원을 채용하여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암적인 존재인 불법·불량전기제품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축출하는데 온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시장에 유통중인 전기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엄격한 공인시험검사를 통하여 비교·분석·평가하여 소비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변별력있게 취사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제품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위기 뒤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이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눈부신 경제도약을 이룩하였던 지난 날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오늘의 시련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는 기필코 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계기가 되도록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회원사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영원한 발전과 영광이 항상 충단하기를 기원한다. ●